



오창국 목사
백운교회

날이 부족 쌓아해지는 가운데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곧 겨울의 문턱, 입동을 맞이합니다. 물도 얼고 땅도 얼기 시작하며,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장차 닥칠 겨울을 준비합니다. 짐승들이 배를 채워 기쁨을 비축하고 식물들이 잎사귀를 떨구어 영양분 소모를 최소화 하듯, 혹독한 계절을 견디기 위한 자연의 '담금질'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 무렵 담그는 김치가 한 해의 겨울 양식이 되고, 따지 않고 남겨 둔 '까치밥'은 더불어 나누는 우리 선조들의 넉넉한 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입동, 동지 무렵, 마

을 노인들을 사또처럼 대접하며 온정을 베풀던 '치계미' 풍속 또한,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미덕을 일깨웁니다.

농사는 단순히 땅을 일구어 먹거리 얻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생명의 시작과 순환을 관장하는 창조주의 섭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거룩한 과정이며, 동시에 자연과의 깊은 대화이자 기다림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 싹을 틔

살이 되기에, 이 날은 단순히 한 개인의 기념일을 넘어, 온 겨레가 농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농부에게 감사하는 뜻깊은 날인 것입니다. 농업은 우리 민족의 근간이자 생명의 보루입니다. 농업인의 날은 이러한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농업인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 하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성군(현 원주시)에서 1964년 처음 제정된 이래 2025년에는 무려 61화를 맞이하는 이 날은 우리 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는 '버캐씨무늬병'이라는 병해와 긴 '가을잠마'까지 겹쳐 과수, 채소 등 거의 모든 농산물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과와 낙과와 열과로 조종생 품종 수입의 절반 가까이 날아갔고, 정책과 재해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농업인의 날이 단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한 해의 풍요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땅을 일구고 생명을 키우는 농업은 하나님에 우

기후 위기 시대 농업인의 날이 단지는 메시지

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는 하늘의 뜻을 구하며 흙에 땀을 섞고 인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이 됩니다.

이렇듯 생명의 근원인 땅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 민족의 지혜와 농사의 철학이 녹아있는 가을, 11월 11일을 떨구어 영양분 소모를 최소화 하듯, 혹독한 계절을 견디기 위한 자연의 '담금질'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 무렵 담그는 김치가 한 해의 겨울 양식이 되고, 따지 않고 남겨 둔 '까치밥'은 더불어 나누는 우리 선조들의 넉넉한 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입동, 동지 무렵, 마

회가 농업과 농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해 벼농사의 결실을 맺을 시기임에도 농민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기 어려운 것은, 비단 이상기후로 인한 수확량 감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이라는 시장의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쌀 시장의 불균형은 심각합니다. 산지 쌀값은 불완전에도 농업조직 차원의 합당한 벗값 인상 조치가 미흡하여 농민들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

리에게 맡기신 창조 세계의 소중한 청지기적 사명과 직결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맛사', 즉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깨달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 제안, 소비자와 농민을 잇는 연대 활동, 그리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다방면으로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박창수 목사
· 기독교학 박사
· 기독교경제학사회총리 전공
· 희년학회 연구위원
· 주가권기독교연대 공동대표

안식년과 희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한다. 토지를 안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희년 규례이다.

레 25:1-2, "1.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다. 사람이 만들어 준 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법인 것이다.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는 뜻인데, 이 말씀에서 땅을 주셨다는 것은 땅의 소유권을 주셨다는 뜻이 아니다.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이전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레 25:2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그런데 4절에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עֲשֵׂה לַיהוָה שְׁמִירָה)은 2절의 "여호와 앞에 안식"(עֲשֵׂה לַיהוָה שְׁמִירָה)과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기본적인 뜻은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다. 왜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까? 그것은 안식년에 하나님도 안식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람이 땅에서 농사를 쉴 때 하나님도 쉬신다. 시 104:14-15, "14.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15.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유쾌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고전 3:7,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을 때, 사람도 쉬고 땅도 쉬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토지 안식

이다. 따라서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라는 말씀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임이라"라는 뜻이다. 땅의 소유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고,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땅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유일한 지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땅의 사용권을 받아, 하나님의 땅을 빌려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일뿐인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의 안식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는 땅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레 25:3-5, "3.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둔 것이나 4.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5.네가 거둔 후의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시니라."

여섯 해 동안은 농사를 짓지만, 제7년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으로 안식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신 15:1-3에 의하면, 안식년에는 가난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안식년법의 2대 규정은 토지 안식과 부채 탕감이다.

도 쉬신다. 그래서 안식년의 땅 안식은 바로 '여호와를 위한(라야도나)' 안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안식년의 빛 탕감이 '여호와를 위한(라야도나)' 해방'인 것과 같다(신 15:2). 안식년의 빛 탕감이 빚을 갚지 못해 빛 독촉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그를 돌보시는 '여호와를 위한 해방'인 것처럼, 안식년의 땅 안식도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인 것이다. 참고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성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며,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시고,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신다(사 1:13-14).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악행을 그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지기에 곤비할 만큼 무거운 짐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을 위한 해방,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안식년의 땅 안식에는 생태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 5절에서 안식년은 '땅의 안식년'이다. 그래서 안식년의 땅 안식은 생태학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2절과 4절에서 안식년의 땅 안식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다. 그래서 안식년의 땅 안식은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최용남
· 한국교회신사역연구소 대표
· 예정통일 전년도회 전도목사
· 행복한 세상 선명함 미래, 2 저자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21 후원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창대교회

표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신약) 하소서' (골3:4)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00	
주일오후	3:00	
수요양육회	7:30	
금요기도회	9:00	

담임: 한성영 목사
62360 광주광역시 광안구 우산천동길 60(가톨릭)
대표전화: 064-1217 FAX: 062-5683

대한예수교장로회 문흥제일교회

표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교회

주일오전	1부	7:30
2부	9:00	
3부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양육회	7:00	
수요양육회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정현목 목사
61127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동15번길46(문흥동)
대표전화: 062-266-8025 FAX: 062-266-8026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벤엘교회

표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

주일오전	1부	7:00
2부	9:00	
3부	11:00	
4부	1:00	
수요양육회	1부	10:30
2부	12:30	
3부	2: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담임: 리종민 목사
61610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170번길 8(문흥동)
대표전화: 367-1004 FAX: 367-1004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새순교회

표어: 오직 사랑 안에서 (마태복음 22:37)

주일오전	1부	8:00
2부	9:30	
3부	11:30	
수요양육회	7:30	
새벽예배(2부)	5:00	

담임: 임종갑 목사
61029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34(가톨릭) 40-25
대표전화: 062-572-9595 FAX: 062-572-9596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유일교회

표어: '주여 자유하게 하소서' (레 25:35, 사 61:1-5, 살 15:23)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00	
주일오후	2:00	
수요양육회	7:00	
새벽기도회	5:00	

담임: 남태복 목사
61747 광주광역시 남구 봉우로 129번길 7
대표전화: 062-653-6161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표어: THE 미라클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30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	8:00	
새벽기도회	5:20	

담임: 장종민 목사
61073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150번길 1008-3
대표전화: 062-951-1191, 1291 FAX: 062-955-4821

기독교한국침례회 아시아침례교회

표어: 네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 22:37)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2:00	
수요양육회	7:30	
새벽기도회	5:00	
새벽기도회	7:30	

담임: 김용민 목사
62442 광주광역시 광안구 송도리7-1(도산동) 85-3
대표전화: 062-943-9322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표어: 주여 자유하게 하소서 (레 25:35)

주일오전	1부	7:30
2부	9:00	
3부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양육회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신준수 목사
61061 광주광역시 북구 마곡동 45-16
대표전화: 062-574-9004

한국기독교장로회 풍암계림교회

표어: '예수님 때문에 행복교회' (마 22:37)

주일오전	1부	11:00
2부	2:00	
3부	7:00	
수요양육회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김정성 목사
62049 광주광역시 북구 봉곡동38번길 4-17 (봉암동)
대표전화: 656-0676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소망교회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마 22:37)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00	
주일오후	2:00	
수요양육회	7:30	
새벽예배(2부)	5:00	

담임: 이종진 목사
61024 광주광역시 북구 상동로 18(영신동 209-185)
대표전화: 062-572-1004 FAX: 062-572-1005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있는교회

표어: 여백을 회복하라

주일	1부	8:00
2부	9:30	
3부	11:30	
주일오후	2:00	
수요양육회	7:30	
새벽예배(2부)	5:00	

담임: 오복희 목사
62303 광주광역시 광안구 수완로 9번길 39-3
대표전화: 062-956-0291 FAX: 956-0290

대한예수교장로회 월광교회

표어: 사귀시는 하나님 믿는 우리 (사 55:1-2)

주일오전	1부	7:30
2부	9:30	
3부	11:30	
주일오후	2:00	
수요양육회	7:30	
새벽기도회	5:00	
금요기도회	9:00	

담임: 김요한 목사
62025 광주광역시 서구 영동로 31번길 1(월광동 417)
대표전화: 062-375-0400 FAX: 062-375-6187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사랑교회

표어: 빛이 있으라 주여 빛을 우리에게 하소서 (창 1:3-5)

주일오전	1부	7:00
2부	9:00	
3부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양육회	7:00	

담임: 리종기 목사
62222 광주광역시 광안구 창곡로 95번길 36
대표전화: 062-943-8800 FAX: 062-943-8808

새날학교

교육목표

1. 삶을 경이하는 삶
2. 성직과 나눔의 삶
3. 세계를 변화시키는 삶
4. 다문화에 포용하는 삶

교장: 이현영 목사
62457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동로 29
대표전화: 1062-943-8935 FAX: 062-943-1634

대한예수교장로회 거성교회

표어: 주여 자유하게 하소서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2:00	
수요양육회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박형성 목사
62308 광주광역시 광안구 수완로 111번길 24
대표전화: 062-951-9891 FAX: 062-951-9895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무등교회

표어: 오직은 광복을 내일은 세계를 (행 1:8)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2:00	
수요양육회	7:30	
새벽기도회	5:00	

담임: 김필목 목사
62305 광주광역시 광안구 수완로 10번길 22
대표전화: 062-951-5064 FAX: 956-1007

대한예수교장로회 입면교회

표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공동체

주일오전	1부	9:00
2부	11:00	
3부	12:30	
주일오후	2:00	
수요양육회	7:30	
새벽기도회	4:50	

담임: 정영철 목사
57513 전남 곡성군 입면 마천리 21-2
대표전화: 061-382-6010

기독교한국침례회 엘림침례교회

표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애를 헌신하라 (시 100:1)

주일오전	오전	11:00
주일오후	오후	2:20
수요양육회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9:00

담임: 변석서 목사
광주광역시 북구 송곡로 10-15 (송곡동 814-7)
TEL: 062-943-1096, 010-667-1096